



삼국유사인문학여행(遊行)

무열왕이 태종으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은?

삼국통일 공로로 문무왕이 '태종' 봉인

1. 김유신과의 혈연동맹

삼국통일은 고조선 해체 이래 한반도 최초의 통일이었다. 삼한일통은 고조선이 해체되며 갈라진 부여와 고구려 및 한(韓), 그리고 옥저와 동예 등을 모아 처음으로 '한민족'이란 원형을 만들었다. 정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당과 대발해, 신라와 왜(일본)의 사국체제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된 의미도 지닌다. 선덕여왕은 통일을 위해 그 기반을 닦았다. 그는 진흥왕 때 착공했던 황룡사를 완공하고 자장의 주청에 의해 황룡사 구층탑을 세워 국민 여론을 한 곳으로 모았다. 선덕여왕이 마련한 토대 위에서 선덕여왕을 거쳐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삼한일통의 물꼬를 텄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삼한일통을 위해 김춘추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는 당시 신라에서 진골세력으로 편입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야계의 김유신과 결탁했다. 가야계의 세력 유지를 위해 진골계와의 연합이 필요했던 김유신 역시 이를 바랐다.

이미 오래 전부터 김춘추는 김유신과 가까이 지내 오고 있었다. 처음 김유신의 동생인 보희(寶姬)가 서산에 올라 소변을 보자 서울이 가득 차는 꿈을 꿔다. 다음날 아침에 보희가 동생 문희(文姬)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문희가 듣고 말했다.

"내가 그 꿈을 살게"

결혼 동맹으로 김유신 군사권 지원받아 신라계·가야계 합일 상징

보희가 "무엇을 주겠느냐"고 하자 문희가 말했다. "비단치마면 팔겠어?"

"좋다" 문희가 치맛자락을 벌리자 보희가 "간밤의 꿈을 너에게 준다"고 말하며 꿈을 넘겼다. 그로부터 10여 일 뒤 김유신이 정월 오기일(五忌日) 김춘추와 함께 축국(蹴鞠)을 하다가 짐짓 김춘추의 옷을 밟아 웃고 립을 때었다.

"우리 집에 들어가 꿰뻌시다." 이에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 김유신은 보희를 시켜 김춘추의 옷을 껴매게 하였으나 보희가 사양하자 김유신은 문희에게 이를 시켰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뜻을 알고 문희를 가까이해 자주 왕래하더니 아이가 잉태됐다.

어느 날 김유신이 문희가 잉태한 것을 알고 꾸짖었다.

"내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잉태하였으니 어찌된 일이나?"

김유신은 문희를 불태워 죽일 것이라고 온 나라에 소문을 퍼트렸다. 하루는 선덕여왕이 남산에 행차하는 것을 기다려 뜰 안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 연기가 솟게 했다.

선덕여왕이 이를 보고 "무슨 연기냐?"고 묻자 신하가 답했다.

"김유신이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답니다." 선덕여왕이 연유를 묻자 신하들이 답했다.

"그 누이가 지아비 없이 잉태한 까닭입니다." 선덕여왕이 "누구의 소행이더냐?"하고 묻자 곁에서 왕을 수행하던 김춘추가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보고 "네 소행이로구나. 빨리 가서 구해 주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 김춘추는 왕명으로 화형을 중지시키고 땀땀이 혼례를 올릴 수 있었다.

김춘추는 문희(문명왕후)와 결혼한 뒤 뒷날 보희와도 결혼했다. 그리고 문희와 사이에서 난 셋째 딸 지소(智昭)를 김유신에게 시집보냈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매제이자 장인이 됐으며 김유신은 김춘추의 처남이자 사위가 됐다.

이러한 '결혼동맹'은 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골세력에 맞서는 진골세력의 약진과 문(文)의 세력과 무(武)의 세력의 결합을 의미했다. 나아가 김유신의 가야세력과 김춘추의 신라세력의 연합을 의미했다.

선덕여왕 11년(642)에 의자왕이 장군 윤충(尹忠)을 보내 신라 대량주(大梁州, 陝川)를 침공했다. 성이 함락되고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高陀炤娘)과 사위 품석(品釋)이 처형됐다. 김춘추는 "대장부가 어찌 백제를 못 없앤단 말이나"며 백제에 원한을 품게 된다.

2. 동아시아 대외교로 변모

김춘추는 탁월한 외교가이자 전략가였다. 그는 신라의 이익을 위해 고구려와 왜국 및 당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전개했다. 김춘추는 먼저 백제에 대한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 군사를 정하러 고구려로 향했다.

642년 6월 5일에 김춘추는 사간(沙干) 훈신(訓臣)과 함께 고구려를 향해 길을 떠나 대매현(大買顯)에 도착했다. 그 고을 사람인 사간 두사지(豆斯支)가 청포(靑布) 300보(步)를 그에게 선사했다. 김춘추가 고구려 경내에 들어가자 고구려왕이 태대대로(태상) 개금(蓋金)을 보내어 사관을 마련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어떤 이가 고구려 왕에게 고하기를 "신라의 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온 것은 우리의 형세를 정찰하러 온 것이니 미리 후환(後患)을 없애십시오"라고 했다. 왕은 김춘추에게 일부러 어려운 요청을 했다.

"마목현(麻木峴, 麻木峴)과 죽령(竹嶺)은 본디 우리 땅으로 신라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김춘추가 대답하기를 "국가의 토지를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 신은 감히 명령을 듣지 못하겠소"라고 답했다. 왕은 노하여 김춘추를 옥에 가두었다.

김춘추는 옥중에서 가지고 간 청포 300보를 당시 왕의 총신이었던 선도해(先道解)에게 남몰래 선사했다. 선도해는 술상을 차려 가지고 와 술이 얼른해지자 김춘추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그대도 일찍이 거북과 토끼의 이야기를 들었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토끼 간을 구해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속에 토끼가 없으니 어찌겠소. 그

때 한 거북이 용왕에게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하고는 육지로 올라갔소. 거북이 토끼를 보고 '바다 속에 섬 하나가 있는데 샘물도 맑고 돌도 하얗고 숲도 무성하고 좋은 과일도 많으며 달거나 쫄지도 않고 매나 독수리 같은 것도 없다. 내가 만일 거기에 간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다' 하며 꾀었소. 드디어 토끼를 등에 업고 바다를 2-3리쯤 헤엄치다 거북이 토끼한테 말했다. '지금 용왕 딸이 병이 들어 토끼 간으로 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를 업고 가는 것이오' 토끼가 답하기를 '나는 신명(神明)의 후손이라 오장을 꺼내 씻어서 바위에 두오, 깎박 잊고 바로 왔소. 나는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양편이 다 좋은 일이지' 라고 말했다. 거북은 그 말만 믿고 되돌아가니 토끼는 곧 풀 속으로 뛰어 들어가며 하는 말이 '어리석은 놈, 간 없이 사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고 했소"라고 말했다.

김춘추는 선도해의 말씀을 알아차렸다. 김춘추는 고구려왕에게 글을 올려 "마목현과 죽령은 본디 대국의 땅이 온즉 신이 본국에 돌아가는 즉시 우리 왕께 청해 돌려드리도록 하겠소.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저 해(日)를 두고 맹세하겠소"라고 말하니 왕은 기뻐했다.

당시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용사 3000명을 뽑아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 고구려를 치러했다. 고구려 처자인 승려 덕창(德昌)이 고구려왕에게 이 일을 고

말사위 죽음의 원인 삼한통일로

고구려·왜·당 오간 명사절 활약

하자 왕은 김춘추를 더 이상 억류하지 않고 후한 예로 대우해 돌려보냈다.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는 선덕여왕 원년(648)에 백제를 치기 위해 다시 왜국에 건너간다. <일본서기>는 김춘추에 대해 '용모가 아름답고 쾌활하게 담소했다'고 전하고 있다. 군사를 정하는 일이 여의치 않자 왜국을 떠난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 한반도 통일의 계획을 세웠다.

김춘추는 당 태종에게 군사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당 태종은 "듣자니 그대 나라에 김유신이 있다는데 그 인품이 어떠한가?"고 물었다. 김춘추는 "김유신이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다 하나, 만일 삼국(上國, 唐)의 위력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어찌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으리까?"라고 답했다. 이에 당 태종은 "진실로 군자의 나라"고 흡족해 하며 조서를 내려 소정방(蘇定方)으로 하여금 20만 군사로 백제를 치게 했다. 고구려와 왜국에서 군사를 지원받지 못한 그였지만 삼한 일통을 위해, 또 삼국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원대한 다짐은 결국 당나라 원군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

3. 삼국통일의 정초자

654년 승하한 선덕여왕은 아들이 없었다. 김유신은 재상으로 있었던 이찬 알천(阿川)과 상의해 이찬



태종무열왕

김춘추를 왕위에 나아가게 했다. 바로 태종 무열왕이다. 무열왕은 삼국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일 먼저 백제를 과녁으로 삼았다.

<일본서기>에서 석도현(釋道顯)은 "김춘추는 본래 고구려를 치는 데 뜻이 있었지만 먼저 백제를 쳤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과의 혈연동맹은 원효와의 동맹으로까지 이어졌다. 원효가 하루는 춘의(春意)가 동해 거리에서 외쳤다.

누가 내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려는가(誰許沒柯斧) 내가 하늘 떠받치는 기둥을 깎으리(我斫支天柱).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 때 무열왕이 이를 듣고 말했다.

"아마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 어린 아들을 낳겠다는 말 같구나.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더없는 이익이다."

무열왕은 그 때 요석궁(瑤石宮)에 홀로 사는 공주가 있었으므로 궁리(宮史)에게 명해 원효를 궁으로 인도해 들어라고 했다. 궁리들이 명을 받들고 원효를 찾으러 가는데 원효는 문천교(文川橋)를 지나다가 그들과 만나자 일부러 물에 빠져 옷을 적셨다. 궁리들은 원효를 요석궁으로 이끌어 옷을 같이입히고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공주가 태기가 있어 설총(薛聰)을 낳았다.

무열왕은 원효의 '풍전가'(瘋癲歌)를 통찰하고 그를 사위로 맞이했다. 원효는 일심(一心)의 철학을 통해 삼국의 통일을 이념적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다.

또 원효는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압호(阿祿)를 통해 신라군을 위기에서 구해 삼한일통의 대업에 일조했다. 김유신은 당군이 고구려를 칠 때 이와 연합하려고 연기(然起)와 병천(兵川) 두 사람을 당나라군 진영에 보내어 합류시점을 물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종이(宗伊) 난새(鸞)와 송아지(犢)를 그려 돌려보냈다. 당시 연합군은 패강(大度江)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라군에서는 그 그림의 의미를 풀이할 수가 없었다. 당군이 철수한다면 신라군도 함께 철수해야만 위험하지 않았다.

김유신이 사람을 보내 원효에게 그 뜻을 물었다. 원효는 그림을 풀이해 "빨리(군사를) 되돌려라"(饋書饋書二切也)고 일러주었다. 한자에서 두 자음을 반씩 따서 한 소리를 만들어 음을 표하는 반절법(反切法)에 의하면 압호는 '혹환'이 되지만 영남지방에서는 히음(형) 발음이 시웃(성) 발음으로 전해온다. '빨리 돌려라'(速還)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에 김유신은 군사를 돌려 서둘러 패강을 건너기로 한다. "늦게 건너는 자는 목을 베리라"는 군령에

원효 암호해석으로 신라군 구해

이념·사상으로 통일 뒷받침

군사들은 다투어 강을 건넜다. 군사들의 절반쯤이 건넜을 때 고구려 군이 공격해 왔다. 다음날 김유신이 반격에 나서 위기에서 벗어난다.

훗날 당 고종은 무열왕에게 태종(太宗)이란 칭호를 쓰지말라는 명을 내린다. 이에 무열왕은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나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태종이라 봉하되"고 표문을 올렸다.

당고종은 태자 시절 하늘에서 '33천의 한 사람으로 신라에 내려온 이가 김유신'이라고 노래하던 것이 생각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사신을 보내 태종 칭호를 쓰도록 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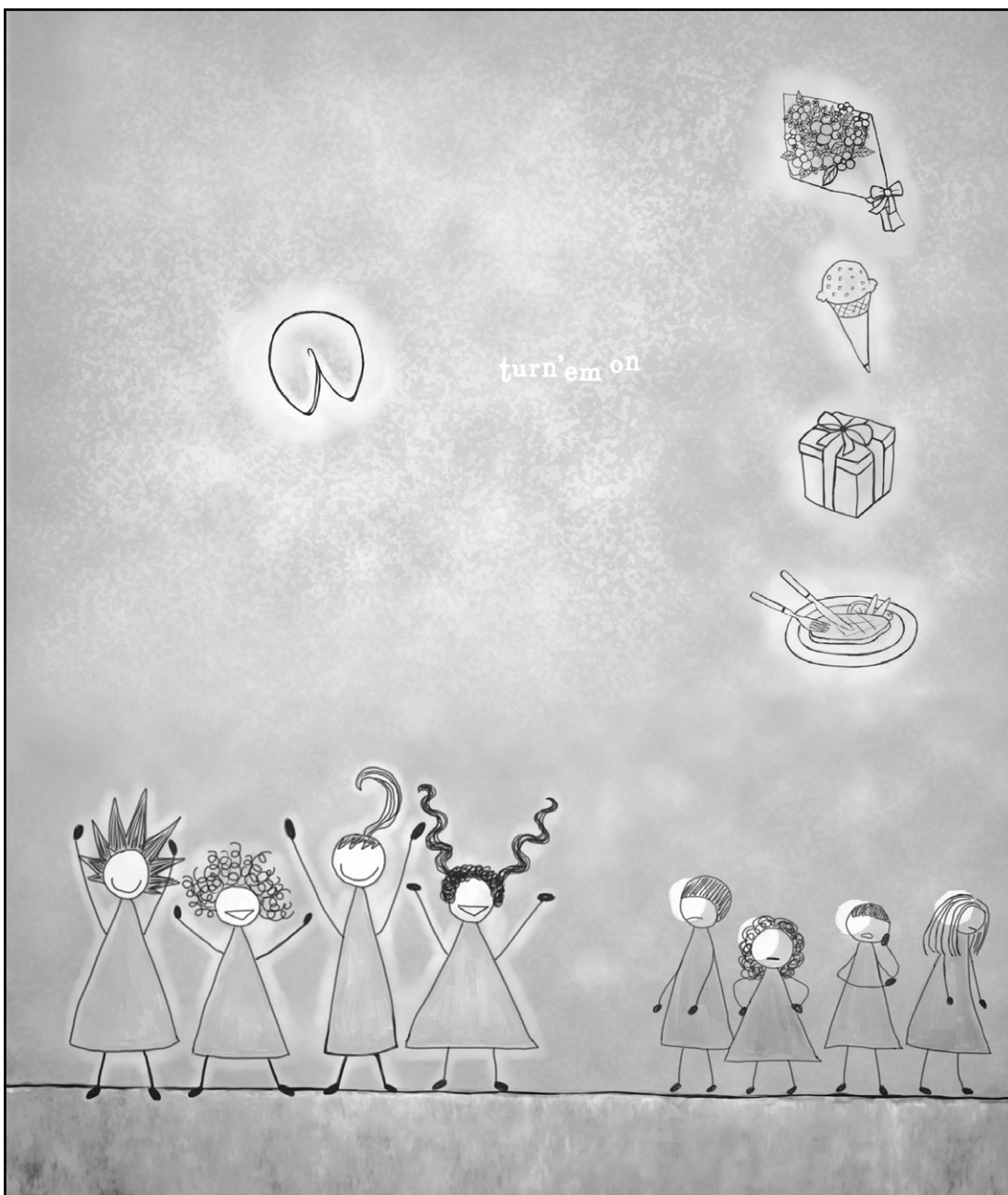
젊은 시절부터 영명한 외교가이자 전략가였던 김춘추는 김유신과 원효란 동반자를 얻음으로서 비로소 삼국통일을 위한 정초자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게 됐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잡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